

# ‘민간 위탁’ 광주 지하철역 부작용 많다

### 19개역 중 17곳... 역장 대부분이 공무원 출신 ‘관피아’ 비정규직 양산·시민 안전 미확보... 시 직영제 전환해야

광주도시철도공사(지하철) 위탁역에서 10여년째 일하는 A씨는 4인 가족의 가장이지만, 지난달 월급으로 158만원(세후)을 받았다. 입사 7년차인 B씨도 월급은 동일하다.

계약직인 이들은 현 임금시스템으로는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동일한 보수를 받게 된다. 업무환경도 열악하다. 일주일 기준 3조(1조당 3명) 2교대로 6일 주기로 근무하고, 하루만 쉰다. 물론 365일 운행되는 지하철의 특성상 명절을 포함한 법정 공휴일도 없다.

3명이 1개 조로 구성돼 있지만 1명이 연차휴가를 내고, 점심시간이 되면 1명이 컴퓨터부터 CCTV설비감시, 안전사고 예방 등 모든 일을 담당한다.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질 엄두도 못 낸다.

반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지하철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역장 중 절반 이상은

공무원 출신으로 월 평균 300만원이 넘는 임금을 챙기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정시 출·퇴근하는 게 전부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김정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철도공사 지회장은 “광주와 달리 서울 등은 지하철이 직영으로 돼 대부분의 역장이 정규직이며, 안전 관리 업무 등도 분담돼 있다”면서 “광주의 일부 역은 1년에 4건 넘게 승객이 철로로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지만 임금과 인원 등 열악한 근무환경 탓에 이를 막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민의 발”인 광주지하철이 예산 절감 등을 명분으로 각 역의 관리·운영을 개인에게 위탁하면서 비정규직 양산, 시민 안전 미확보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역을 위탁받은 개인사업자 대부분이 전문성이 결여된 퇴직공무

원들로, 광주식 ‘관피아’들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면서 위탁역을 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5일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광주의 19개 역 중 중점인 평동과 소태역을 제외하고 17개 역이 위탁역이다. 스크린도어가 설치돼 상대적으로 관리가 쉬운 5개 역은 2개역씩 묶어 위탁했으며, 위탁역장은 모두 12명이다.

개인사업자 신분인 역장은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1개역당 연평균 3억1000만원의 도급비(운영비)를 받고 직원 인건비, 승차권 발매, 승객 안전 책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각 역이 위탁운영되는 탓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무원 155명 모두 비정규직으로, 한 달 평균 기본급은 108만원에 불과하다. 또 2년 단위로 역장이 바뀔 때마다 재계약에 해 호봉 등 임금인상도 없다.

이들이 맡고 있는 업무는 정규직과 같은 승강장 내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안전과 직결된다. 하지만, 인원이 적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탓에 각 역마다 한달평균 3~4건씩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

다. 특히 스크린도어가 없는 역의 경우엔 생명과 직결되는 철로로 뛰어드는 사고마저 발생하고 있지만, 예방은커녕 대처하기에도 벅한 상황이다.

위탁역장의 전문성도 논란이다. 12명의 위탁역장 중 6명은 광주시 등 퇴직공무원이고, 나머지는 도시철도 출신 2명, 민간 기업체 출신 4명 등으로 대부분 지하철과는 무관한 비전문가다.

일부 민간 위탁역의 운영비 사용도 엉망이다. 최근 노조가 공개한 운영비 사용명세를 보면 역장 자녀 결혼 축의금부터 도시철도공사 분사 직원 경조사비, 사무용품비 과다 지급, 사용내용이 없는 지출 등이 드러나기도 했다. 인건비는 최대한 줄이면서 운영비는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관련, 노동 관련 단체가 모인 지방정부와 좋은 일자리 위원회는 “운영현황과 안전을 담당하는 업무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만큼 취임 이후 위탁역장제를 폐지하고, 직영제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보성 득량역에서 “대~한민국”

### 코레일, 27일 응원 행사... 순천·여수 무료 숙박권 등 제공

코레일은 27일 새벽 5시(한국시간) 우리나라의 16강 진출여부를 결정짓는 브라질 월드컵 H조 예선 마지막 경기 벨기에를 위해 보성 득량역에 ‘내일도 여행 참춘(내일라)’ 등의 응원의 장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득량(得耑)의 지명은 임진왜란 당시 12척의 전함밖에 남지 않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대치하던 중 바다난 군량미를 충당해 명량대첩의 승리를 끌어내 얻어진 이름으로, 우리 태극전사들도 필승의 신념으로 경기에 임하기를 기대하는 의미로 이번 응원 행사를 기획했다고 코레

일은 설명했다.

특히 코레일은 전남인 26일 순천역(오후 5시35분)과 광주송정역(오후 7시31분)을 출발하는 무궁화 열차를 응원열차로 정해 ‘내일도 여행객(내일라)’들이 득량역으로 올 수 있도록 했다. 코레일은 응원에 참가하는 내일러들을 위해 저녁식사와 야식은 물론, 27일과 28일 순천·여수지역 무료 1박 숙박권도 제공(선착순 200명)한다.

내일러는 만 25세 이하 젊은이들에게만 판매하는 기자자유여행 패스이다.

# 광주·전남 맛벌이 비율 높다

### 광주 10가구 중 4가구... 특·광역시 중 최고 전남 5가구 이상... 제주 제외 ‘전국 두번째’



전남 지역은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이, 광주 지역은 10가구 중 4가구가 맛벌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 지역 맛벌이 비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고, 광주는 서울을 비롯한 특·광역시 중 맛벌이 비율이 가장 높았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맛벌이 가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 유배우 가구(가구의 혼인상태가 ‘배우자 있음’인 가구는)는 44만8000가구로 이 중 25만7000가구가 맛벌이가구(유배우 가구 중 가구주와 배우자 모두가 취업자인 가구)로 집계됐다.

전남 지역 맛벌이가구 비율은 제주(60.9%)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

았으며, 지난해 6월 56.2%에 비해서는 낮아졌다.

광주 지역은 유배우 가구 34만9000가구 중 맛벌이 가구 비율은 15만4000가구(44.2%)로 서울(36.7%)을 비롯한 대전(43.2%), 대구(41.7%), 인천(41.2%), 부산(36.9%), 울산(36.3%) 등 특·광역시 중 맛벌이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다.

통계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맛벌이 가구가 다른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 무안~심양 직항 전세기 주3회 운항

### 백두산 가는 길 빨라져

중국 남방항공이 무안공항에서 출발하는 무안~심양 간 직항 전세기를 7월 11일부터 10월6일까지 주3회 운항하기로 했다.

중국 남방항공은 558대의 항공기를 보유한 아시아 최대의 항공사로, 국내에서는 1994년 첫 취항해 서울, 부산, 제주, 대구, 청주, 양양, 무안공항에서 국제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운항 기종은 151명이 탑승할 수 있는 A-320이며,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경우 관광 성수기에 부정기적으로 추가 운항을 예정이다. 남방항공은 지난해에도 7월12일부터 10월7일까지 38회를

운항해 1만1351명이 이용한 바 있다.

심양은 중국 동북지방의 최대 도시로, 금나라 때부터 청나라가 북경으로 천도하기 전까지 수도로 번성했던 곳이다. 이 시기 고궁, 능 등 만주시대의 유적들이 잘 보존돼 있다.

특히 중국 남방항공으로 심양~백두산 공항 간 연결이 쉬워 백두산을 관광하려는 관광객들의 수요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번 무안~심양 노선 운항으로 광주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서도 보다 손쉽게 심양으로 갈 수 있게 돼 인천까지 이동해야 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 노선 문의는 중국 남방항공 한국 누리집(kr.csair.com) 또는 고객센터센터(1899-5539)에서 가능하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구례산수유군락지. 아름다운 경관이 잘 보존되고 지역민의 삶과 공존하고 있어 선정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4호로 지정된 담양 대나무밭. 농자재와 지역민의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환경보전 수준으로 가치를 인정받았다.

# 구례 산수유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담양 대나무밭

구례 산수유농업과 담양 대나무밭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하는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확정됐다.

구례군과 담양군은 3년간 15억원을 지원받아 산수유농업유산과 담양군 대나무밭의 체계적 보전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도는 25일 “전국에서 18곳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해줄 것을 신청했으며 이를 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일 농업문화, 생물다양성, 경관특성 등 유산적 가치를 평가한 끝에 전남의 2개 소만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미 구례 산수유시목 및 군락지를 시작으로 제2호 보성 계단식 차밭, 제3호 담양 대나무밭, 제4호 신안 갯벌·염전, 제5호 화순 붓도랑과 다랑이논, 제6호 무안 회산백련지, 제7호 영광 염전 등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 지정 중요농업유산으로 선정해 관리해오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제도는 보전·전승할 가치가 있는 지역 농업문화의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입했으며, 지난 2013년 전국 최초로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제1호)과 제주 흑룡만리 돌담밭(제2

호)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들 유산은 지난 4월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서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으로 추가 등재됐다.

이번 지정으로 전남은 전국 4곳의 국가중요농업유산 가운데 3곳을 차지하게 됐다.

국가중요농업유산 제3호로 지정된 ‘구례 산수유농업’은 산수유가 지역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지역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공존하고 있고, 산수유 꽃과 어우러진 구례 산동의 낮은 돌담 등 농촌의 아름다운 경관이 잘 보존돼 있다는

것이 선정 이유가 됐다. 또 제4호 ‘담양 대나무밭’은 대나무가 각종 농자재와 지역민의 생활용품으로 다양하게 활용돼 왔을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 배출량이 많아 환경보전 수준으로 따지면 가치가 인정됐다.

전남도 조영의 농업정책과장은 “전남의 전통 농업유산 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국가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유산을 농촌관광 자원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밝은광주안과**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해당 사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노안 치료 대상자입니다

**노안시력교정수술로**  
돋보기, 안경 없는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해결  
· 노화된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바꿔서 백내장과 함께 노안해결  
· 각막에 초정밀 미세 인레이를 삽입하여 노안해결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번호: 062-233-9961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각선 100-1

NAVER **단비플라워** 농 선물로

## 단비플라워

죽아와환3단      근조와환3단

### 365일 연중무휴

###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외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 신협을 알아야 재테크의 완성!

1인당 예금비과세 **3,000만원**  
(생계형 / 세금우대 별도)

**대출한도 25억원**

한도는 높게 ▲ 최대 ~80%  
금리는 낮게 ▼ 최저 4.3%~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 | 금호지점 | 풍암지점